

##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2016.05.02 | 최정은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소득 및 지출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보았다. 청년이 겪는 경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세대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는데, 주거비 부담은 많이 늘었다. 특히 청년세대 안에서도 1인가구가 결혼하거나 자녀를 둔 다른 청년 가구들보다 경제활동 조건이 좋지 않음을 확인했다.

###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과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이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sup>1)</sup>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으로 낮아져, 2000년대 말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사태 당시의 6.2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의 초혼연령대가 모두 30대로 진입하면서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높아졌다. 결혼을 미루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년세대들의 열악한 경제력이 만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통계청, “2월 고용동향”, 2016.3.

동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비혼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비혼'을 말하는 층이 700%나 증가했다고 한다.<sup>2)</sup>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세대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는 '비혼화' 현상도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부담 때문에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기회마저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 결혼 형식을 간소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높은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란 희망마저 줄어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 과정이 되고 있다.

##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가장 열악

누가 청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을 19~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청년층을 19~35세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40대 이상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대 초중반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세대 안에도 취업이나 결혼, 자녀 유무에 따라 처한 입장들은 상이하다. 전국 단위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를 알아보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구로 구성된 청년세대의 현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1인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상세히 보려고 시도했다.

2) <연합뉴스> “결혼, 꼭 해야 하나...5년새 SNS서 '비혼' 700%↑”, 2016.4.25.

## 청년 1인가구 가장 열악, 자녀 많을수록 미래 준비 부족

결혼해 자녀를 둔 청년가구와 비교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고 남는 소득이 적으며, 결혼한 청년 부부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갈 재원도 같이 낮아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전체 평균과 청년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았다. 가구별로 전체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1%, 무자녀부부는 66.3%, 1자녀부부는 86.3%, 2자녀부부는 96.3%로, 1인가구와 2자녀부부의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 안에서 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취업 비중은 75.5%로 가장 낮은 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무자녀부부 96.4%, 1자녀부부 92.6%, 2자녀부부 96.3% 등으로 대부분 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36.6%, 무자녀부부는 41.7%, 1자녀부부는 56.7%, 2자녀부부는 62.7%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1인가구 취업자 중 39.7%, 무자녀부부는 25.7%, 1자녀부부는 16.9%, 2자녀부부는 11.0%다. 청년세대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7.5%, 무자녀부부는 82%, 1자녀부부는 78.6%, 2자녀부부는 76.2%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청년 1인가구 중 17.8%, 무자녀부부는 9.9%, 1자녀부부는 7.2%, 2자녀부부는 9.1%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전 연령대 청년세대 모두에서 취업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아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 참고).

표1. 2014년 취업과 흑자율 비교: 가구별 전체와 청년세대 (단위 : %)

	1인가구		무자녀부부		1자녀부부		2자녀부부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취업율	51.0	75.5	66.3	96.4	86.3	92.6	96.3	97.5
상용근로자	36.6	67.5	41.7	82.0	56.7	78.6	62.7	76.2
임시일용근로자	39.7	17.8	25.7	9.9	16.9	7.2	11.0	9.1
흑자율	19.5	16.5	28.7	37.1	30.7	27.9	23.3	26.7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참고2 : 청년세대 연령 범위 만 18세 ~ 35세

참고3 : 흑자율(통계청)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가구별로 지출한 후 얼마나 소득이 남는지도 흑자율로 비교해보았다. 가구별 청년세대의 취업 비중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도 흑자율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은 16.5%로 전체와 청년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아 취약하며, 청년 무자녀부부의 흑자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낮고, 소비도 줄어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가구별 전체 평균 소득과 청년세대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35%이상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별 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4년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득은 30.1%, 무자녀부부는 42.5%, 1자녀부부는 44.4%, 2자녀부부는 41.8% 올랐다. 반면,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7.4%, 무자녀부부 40.7%, 1자녀부부 34.7%, 2자녀부부 43.7% 등으로 2자녀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표2 참고).

표2. 가구별 전체와 청년 소득 비교: 2006년과 2014년 (단위 : 원, %)

		1인가구	무자녀부부	1자녀부부	2자녀부부
전체 소득 (평균)	2006년	1,200,982	2,263,084	3,227,896	3,552,595
	2014년	1,562,820	3,223,780	4,661,860	5,036,763
	소득 증가액(원)	361,838	960,696	1,433,964	1,484,168
	소득 증가율(%)	30.1	42.5	44.4	41.8
청년 소득 (평균)	2006년	1,552,686	3,218,359	3,058,769	2,965,414
	2014년	1,978,666	4,528,401	4,119,574	4,262,091
	소득 증가액(원)	425,980	1,310,042	1,060,805	1,296,677
	소득 증가율(%)	27.4	40.7	34.7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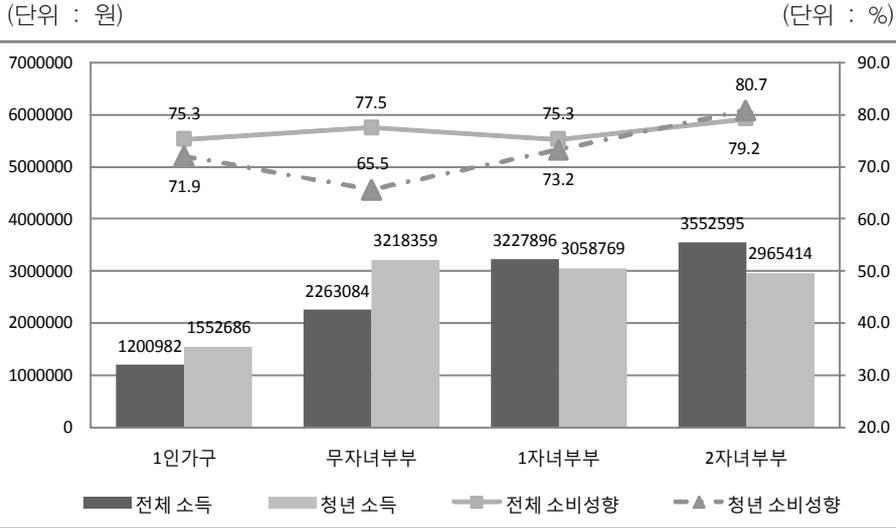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그렇다면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과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별 흑자율은 증가했다. 반면, 1인가구의 사정은 달랐다.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비성향은 높아지면서, 흑자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 1인가구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별로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줄었으나, 1인가구는 소득 총액이 높지 않다보니 기본 생활비를 줄일 여지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14년 전체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3%에서 80.5%로, 무자녀부부는 77.5%에서 71.3%로, 1자녀부부는 75.3%에서 69.3%로, 2자녀부부는 79.2%에서 76.7%로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14년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가구는 71.9%에서

83.5%로, 무자녀부부는 65.5%에서 62.9%로, 1자녀부부는 73.2%에서 72.1%로, 2자녀부부는 80.7%에서 73.3%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그림1, 그림2 참고).

그림1. 2006년 가구별 전체와 청년 소득과 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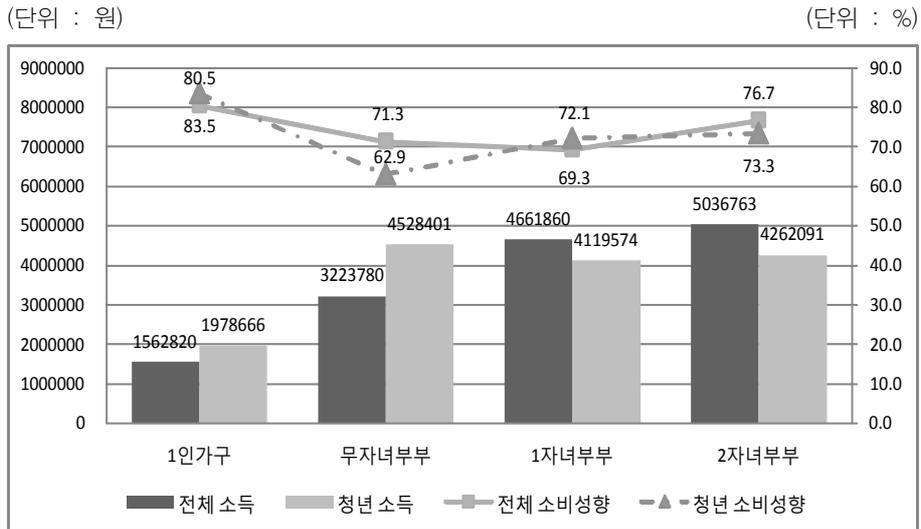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원자료

참고2 : 좌측 축 - 전체소득, 청년소득 / 우측 축 - 전체 소비성향, 청년 소비성향

참고3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그림2. 가구별 전체와 청년 소득과 소비성향(2014년)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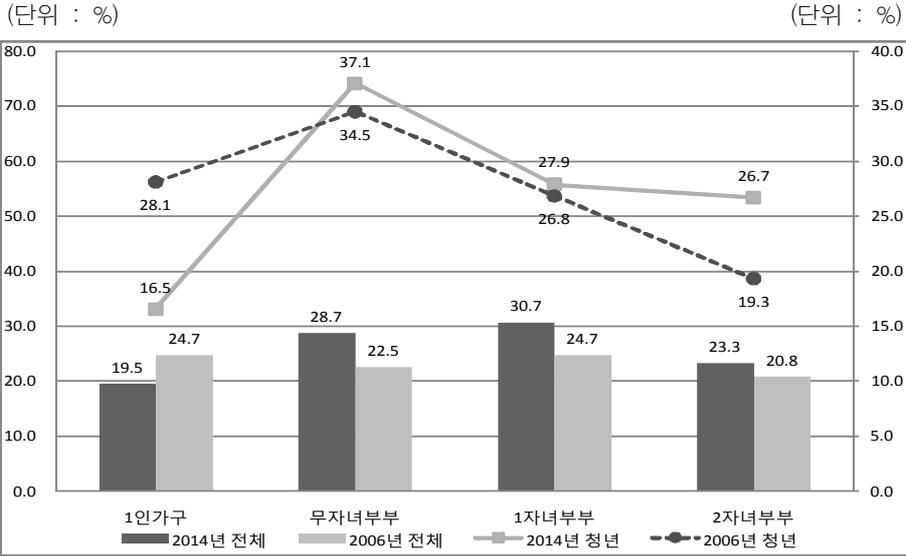
참고2 : 좌측 축 - 전체소득, 청년소득 / 우측 축 - 전체 소비성향, 청년 소비성향

참고3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흑자율만 비교해보더라도, 2006년 1인가구와 1자녀부부의 전체와 청년 평균 흑자율은 비슷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전체와 청년 1인가구의 평균 흑자율과 1자녀부부의 흑자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1인가구의 남은 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의 미래 설계는 점점 더 어려워짐을 확인하게 된다(그림3 참고).

그림3. 가구별 전체와 청년 흑자율 비교: 2006년과 2014년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참고2 : 좌측 축 - 2014년 전체, 2006년 전체 / 우측 축 - 2014년 청년, 2006년 청년

## 주거비 부담 늘고 교육비 지출 줄어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한 가운데, 전 연령대와 청년세대에서 주거비 부담은 늘고 교육비 지출은 줄었다. 소비지출 부문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료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 등에서 청년세대들의 소비지출 비중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전체 소비지출 비중을 비교해보면, 주거 및 수도권 광역비 비중에서 1인가구는 18.9%에서 20.4%로, 무자녀부부는 12.2%에서 13.0%로, 1자녀부부는 9.5%에서 10.0%로, 2자녀부부는 8.9%에서 8.8%로 늘었다. 보건비를 보면, 1인가구는 8.3%에서 8.7%로, 무자녀부부는 9.4%에서 9.5%로, 1자녀부부는 6.1%에서 6.3%로, 2자녀부부는 4.9%에서 5.6%로 증가했다. 반면, 교육비 비중은 1인가구 1.9%에서 1.6%로, 무자녀부부는 2.2%에서 2.7%로, 1자녀부부는 9.3%에서 9.1%로, 2자녀부부는 15.8%에서 15.9%로 무자녀부부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표3 참고).

표3. 가구별 전체 소비지출 변화: 2006년과 2014년 (단위 : %)

전체	2006년				2014년				차이			
	1인 가구	무자 녀부부	1자 녀부부	2자 녀부부	1인 가구	무자 녀부부	1자 녀부부	2자 녀부부	1인 가구	무자 녀부부	1자 녀부부	2자 녀부부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7	17.7	13.9	12.9	15.9	16.5	13.4	12.6	1.2	-1.2	-0.5	-0.2
2. 주류 및 담배	2.2	2.0	1.5	1.3	1.5	1.4	1.1	0.9	-0.6	-0.6	-0.4	-0.4
3. 의류 및 신발	5.6	6.2	6.7	6.2	5.8	6.1	6.9	6.7	0.3	-0.1	0.2	0.5
4. 주거 및 수도광열	18.9	12.2	9.5	8.9	20.4	13.0	10.0	8.8	1.5	0.9	0.5	-0.1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0	4.1	3.5	3.4	3.9	4.6	4.5	3.8	0.9	0.4	1.0	0.5
6. 보건	8.3	9.4	6.1	4.9	8.7	9.5	6.3	5.6	0.4	0.1	0.2	0.6
7. 교통	11.0	13.5	13.5	12.4	10.2	13.8	13.6	13.3	-0.8	0.3	0.1	0.9
8. 통신	6.8	6.1	7.0	6.6	4.7	5.1	6.0	5.8	-2.1	-1.0	-0.9	-0.8
9. 오락 및 문화	4.7	4.6	5.4	5.8	5.5	5.7	6.1	5.9	0.8	1.1	0.7	0.1
10. 교육	1.9	2.2	9.3	15.8	1.6	2.7	9.1	15.9	-0.4	0.5	-0.2	0.0
11. 음식 숙박	15.0	12.4	13.7	13.6	12.7	12.5	13.5	13.1	-2.3	0.1	-0.2	-0.5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7.9	9.6	9.9	8.2	9.1	9.1	9.4	7.7	1.1	-0.5	-0.6	-0.6
의식주소계	44.4	42.2	35.2	32.7	47.6	41.7	35.9	33.0	3.2	-0.5	0.7	0.3
의식주보건 소계	52.7	51.6	41.3	37.6	56.3	51.1	42.3	38.5	3.6	-0.4	1.0	0.9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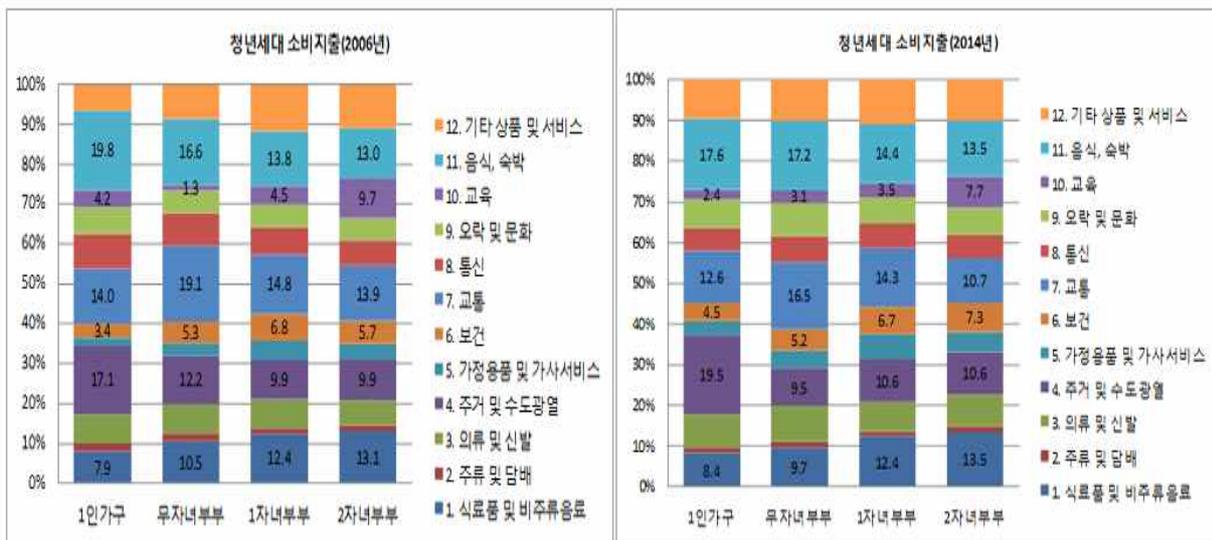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구 전체와 청년세대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 및 수도광열비, 보건, 오락 및 문화 비중이 증가한 반면, 통신과 교육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세대 소비지출을 2006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주거 및 수도광열비 부담은 1인가구 17.1%에서 19.5%로, 1자녀부부와 2자녀부부는 모두 9.9%에서 10.6%로 늘었다. 반면, 교육비 비중은 청년 1인가구 4.2%에서 2.4%로, 무자녀부부는 1.3%에서 3.1%로, 1자녀부부는 4.5%에서 3.5%로, 2자녀부부는 9.7%에서 7.7%로, 무자녀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줄었다(표4, 그림4 참고).

표4. 가구별 청년세대 소비지출 변화: 2006년과 2014년 비교 (단위 : %)

청년	2006년				2014년				차이			
	1인가구	무자녀부부	1자녀부부	2자녀부부	1인가구	무자녀부부	1자녀부부	2자녀부부	1인가구	무자녀부부	1자녀부부	2자녀부부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9	10.5	12.4	13.1	8.4	9.7	12.4	13.5	0.5	-0.8	0.0	0.5
2. 주류 및 담배	2.1	2.1	1.4	1.5	1.3	1.4	1.1	1.3	-0.8	-0.7	-0.3	-0.2
3. 의류 및 신발	7.4	7.2	7.1	6.3	8.2	8.7	7.3	7.8	0.8	1.6	0.2	1.5
4. 주거 및 수도광열	17.1	12.2	9.9	9.9	19.5	9.5	10.6	10.6	2.5	-2.7	0.7	0.7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2.1	3.4	4.9	4.2	3.4	4.3	6.2	4.8	1.3	0.9	1.3	0.7
6. 보건	3.4	5.3	6.8	5.7	4.5	5.2	6.7	7.3	1.0	-0.1	0.0	1.6
7. 교통	14.0	19.1	14.8	13.9	12.6	16.5	14.3	10.7	-1.4	-2.6	-0.4	-3.1
8. 통신	8.5	8.1	6.9	6.4	5.8	6.3	6.1	5.8	-2.8	-1.8	-0.8	-0.6
9. 오락 및 문화	6.8	5.6	5.7	5.6	7.0	8.2	6.4	6.9	0.2	2.6	0.7	1.3
10. 교육	4.2	1.3	4.5	9.7	2.4	3.1	3.5	7.7	-1.9	1.8	-1.0	-2.0
11. 음식, 숙박	19.8	16.6	13.8	13.0	17.6	17.2	14.4	13.5	-2.3	0.6	0.6	0.5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6.7	8.7	11.8	10.8	9.5	10.0	10.9	10.1	2.8	1.3	-0.9	-0.7
의식주 소계	36.5	35.3	35.7	35.0	40.8	33.6	37.6	38.0	4.3	-1.8	1.9	3.1
의식주보건 소계	40.0	40.6	42.5	40.6	45.3	38.8	44.3	45.3	5.3	-1.8	1.8	4.7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그림4. 2006년과 2014년의 청년세대 소비지출 변화 비교 (단위 : %)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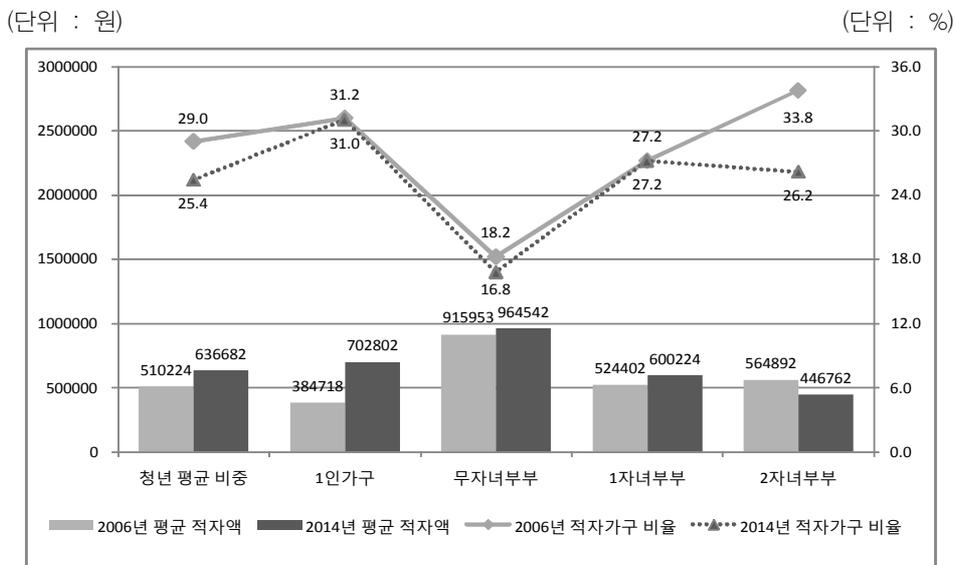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악화되는 청년의 삶 바꿀 방안 모색

전국 단위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소득 및 지출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청년세대 전반에 걸쳐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교육비 지출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 안에서도 1인가구가 결혼하거나 결혼해 자녀를 낳은 다른 청년 가구들보다 경제활동 조건이 좋지 않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청년세대의 적자 현황을 보면, 청년 평균 적자 비중은 2006년 29%에서 2014년 25.4%로 줄어들었으나, 평균 적자액은 2006년 -51만224원에서 2014년 -63만6681원으로 그 규모는 커졌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적자액은 2006년 -38만4718원에서 2014년 -70만2802원으로 1.8배 늘었다(그림5 참고).

그림5. 청년 적자가구 비율과 적자액 비교



참고1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2014년 원자료

참고2 : 좌측 축 - 2006년 평균 적자액, 2014년 평균 적자액

우측 축 - 2006년 적자가구 비율, 2014년 적자가구 비율

현재 경제 불안은 소득 정체를 낳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와 1자녀부부의 소비성향이나 흑자율이 비슷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1인가구는 낮은 소득과 흑자율로 여타 가구 형태에 비해 좋지 않다. 특히 청년세대 전체와 청년 1인가구의 문제는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물론 보이는 통계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 이면에 보이지 않는 니트족과 혼인통계 밖에 있는 비혼층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부정적인 평가들이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 청년세대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빠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본 글과 연이은 연구는 청년세대의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미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5월 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